

【 국내금융 뉴스 】

표준보험료 산출대상 20개로 확대

- 금융위는 14일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판매채널 다양화에 대응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에는 감독당국이 보험상품별 가격 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 확대를 위해 표준순보험료 산출 대상을 기존의 13개에서 20여 개로 늘릴 계획임.
 - 표준순보험료는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적용해 계산한 순보험료로 보험료 적립시 기준이 되며 통상 업계 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설정됨.
 - 생명보험은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생존·사망률, 퇴직연금 사망률, 재해율, 입원율, 암위험률 등 12개이며,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률 1개가 표준보험료 산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심질환 등을 추가하여 표준순보험료 산출 대상을 일차적으로 20여 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업계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 70~80%를 대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판매 첫해에 받는 선지급 수당을 줄이는 보험모집수당 체계의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금융위는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되는 수당이 전체 수당의 70% 안팎에 달해 보험설계사들이 이직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판매 후 관리 소홀과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임.
 - 현재 보험회사들이 수당을 분납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하고자 미국의 직접 규제 사례와 이연 신계약비 초기집행분의 자산 인정 제한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보험업계에서는 표준보험료 산출의 대상 확대와 보험모집수당 체계의 개편이 보험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등, 금융위 등, 12/14)